

## “주말엔 루오전으로 문화 나들이”



13일 전남도립미술관에서 열고 있는 '인간의 고귀함을 지킨 화가 조르주 루오전'을 방문한 이들이 조르주 루오의 삶과 작품을 담은 영상물을 관람하고 있다.

### 광양 전남도립미술관 '인간의 고귀함을 지킨 화가 조르주 루오전' '미제레레' 등 명작 250여점...관객들 다양한 인간의 모습에 감탄

광양 전남도립미술관에서 열고 있는 '인간의 고귀함을 지킨 화가 조르주 루오'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평일 오전에는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단체 관람객들이 방문하고 있으며 특히 주말에는 전남지역 이외에도 광주와 서울 등 수도권 지역 미술 애호가들의 관람이 눈에 띄었다.

〈관련기사 16면〉

이번 전시에는 풍피두센터와 조르주 루오재단 등에서 엄선한 200여점의 작품이 나왔고 연계 전시 '조르주 루오와 한국미술'전에서는 이중섭 등 24명의 작품 54점을 만날 수 있다.

13일 찾은 전시장에서는 루오의 작품이 주는 인간 존엄의 의미를 되새기며 차분히 그림을 감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특히 하루 세 차례

(오전 11시~오후 1시 30분~3시) 열리는 도슨트 해설은 좀 더 체계적으로 작품을 관람하려는 이들의 호응을 얻었다.

또 성황초, 광양제철초, 순천 인안초, 광양보보유치원 등 단체 관람객의 발걸음도 이어졌다.

매달 '명화감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광양 장덕어린이집 정은숙 원장은 "행복한 모습만이 아닌 다양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위해 아이들과 전시회를 찾았는데, '고민하는 모습 같다', '슬프다', '멋지다', '기슴이 뚱다' 등 다양한 표현을 하는 아이들을 보고 감탄했다"며 앞으로 도립미술관에서 어린이들도 함께 관람할 수 있는 명화전을 많이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양상항초 3학년 담임 교사는 "아이들이 느

끼기에 작품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학교에 돌아와 감상평을 들어보니 가족들과 함께 다시 보고 싶은 흥미로운 전시라고 해 놀랐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장 중 관람객들에게 가장 큰 울림을 주는 작품은 58점으로 구성된 판화 연작 '미제레레'다. 이번 광양전과 관련, '미제레레' 해설을 쓰기도 한 서울대학교 성미술담당 정웅모 교수는 "제 1차 세계대전의 참상을 겪은 루오가 인간에 대한 연민을 담아 제작한 '미제레레'는 현재의 우리 모습을 돌아보게 한다"며 "전시장을 방문해 작품이 건네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시관람 후에는 쇼핑과 맛집 순례를 하는 이들도 많다. 미술관에서 차로 5분 떨어진 곳에는 백화점·할인매장·마트·푸드코트·영화관 등이 들어선 복합아웃렛이 자리하고 있으며, 광양숯불갈비 전문점 등 맛집도 많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내년 전국체전 전남에서 열린다

2023년 10월 13~19일  
목포 중심 시·군 경기장에서

내년 열리는 전국체육대회가 목포와 전남 일대에서 펼쳐진다. 전남에서 전국체전이 치러지는 것은 지난 2008년 여수 개최 이후 15년만으로, 전국체전 기간에만 3만여명의 선수·응원단이 전남에서 머물게 돼 지역 일자리 창출, 수천억원 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관련기사 19면〉

전남도는 전국체전을 계기로 '2022-2023 전남 방문의해'와 연계해 서남권 지역경제 활성화를 비롯한 전남 발전의 기폭제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울산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 103회 전국체육대회' 폐회식에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2023년 열리는 제 104회 전국체전 대회를 전달받고, 체전 성공 개최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제 104회 전국체전은 2023년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제 43회 전국장애인체전은 11월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 주 개최지 목포시를 중심으로 22개 시·군 일원에서 치러진다.

전남도는 이날 폐회식에서 '대회기 인수'와 차기대

회 개최지인 전남을 알리는 '제 104회 전국체전 홍보 영상물' 상영을 통해 전남의 브랜드 이미지와 역량, 전남 개최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대내외에 알렸다.

김 지사는 "내년 전국체전을 화합과 감동의 멋진 무대로 잘 준비해 잊지 못할 경험과 오감만족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7-13일 울산 전국체전 기간 울산종합운동장 일원에 '전남홍보관'을 운영하면서, '2023년 전남 전국체전' 엠블럼과 마스코트인 '행복이'와 '오뎀이'를 선보이면서 전국체전 홍보 활동도 펼쳤다.

전남도는 또 울산체전 기간에 시설·운영 등 분야별 담당자를 상주시키며 성공 개최를 위한 대회 모니터링도 진행했다.

전남도는 오는 10월 말 준비상황보고회를 열고 체전 성공 개최를 위한 본격적 활동에 들어가는 한편, 11월 정치·경제·문화·체육·인문 등 각 분야 대표인사 138명으로 구성된 전국체전 조직위원회 창립총회를 열고 성공 개최를 위한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에 나선다. 전남도는 12월 목포역 광장에 카운트다운 시계탑 제막식을 갖고 D-300일 행사를 통해 대회 개최 의미를 적극 홍보하는 등 개최 붐 조성 활동도 벌일 계획이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13일 오후 울산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폐회식에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으로부터 대회기를 전달 받은 뒤 힘차게 흔들고 있다. 〈전남도 제공〉

광주 사립고에서 또 시험지 유출 의혹 ▶6면

가을 호랑이들 "오늘 만 뵈다" ▶18면

임의진의 언저리와 변두리 - 공항의 풍경 ▶22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 전라남도 SOC 르네상스 시대 실현!

사상 최초 전남 예산 11조원 시대 개막!  
2022년 국고예산 8조원 돌파!  
역대 최대 SOC 국가계획반영 쾌거!

